



순창군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농업 6차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 농어촌체험관광 '인기'

체험농장 11곳 방문객 1만3000명 넘어...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결실'

순창군이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농업 6차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올해 순창지역 체험농장 11개소 체험방문객이 총 309회에 1만3000명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11개소의 체험농장에서 얻은 실적으로 적지 않은 수치다.

이처럼 순창군 체험농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순창군만의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개발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 군은 지난해 마을 해설가를 양성한데 이어 올해는 농어촌체험지도사 18명에 대한 수료식을 최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2달간 100시간에 걸쳐 전문교육을 수료했다.

교육내용은 체험프로그램 기획운영, 체험지도기법, 체험교재 개발, 응급처치요령 등 실무에서부터 기획능력향

상까지 다양하며 각자 체험농장에서 활동하며 프로그램 기획과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게 된다.

인력양성과 함께 군은 체험농장 시설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해 올해 3개 농장에 8천여만원을 지원해 시설을 개선했다.

프로그램 운영도 눈에 띈다. 순창군은 고추장 등 향토자원과 블루베리, 복분자 등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순창색이 묻어나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또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농촌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전문회사와 신규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 중이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지역 체험농장과 도시민을 연결하는 캠퍼 및 팜파티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올해 이미 200여명의 도시민과 지역 체험농장을 연결했으며 앞으로 100여명 가량의 도시민과 체험농장을 연결하는 팜파티를 진행할 계획

이다. 또 지역지인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도 구축해 향토음식을 통한 도시민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는 복안이다.

이규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순창군은 농촌마을을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할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수료식을 마친 체험지도사처럼 주민들이 농촌활성화를 직접 이끌고 순창의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가 하나의 농촌 체험문화로 융복합되어 6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에는 고추장익는 마을, 가이아, 가인, 러브팜, 서빈, 갯간애복, 농부야놀자, 단비네농장, 금삼농장, 순창고추장익는마을, 배리굿부부농장, 분자랑 사과랑 등 농촌체험농장이 활발히 운영 중에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화산마을, 신규 마을기업 선정

5000만원 보조받아... 산나물 음식체험 등 적극 추진

고창군(군수 박우정) 고창읍 화산마을 화산영농조합법인(대표 이숙희)이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됐다.

19일 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행정자치부는 마을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공동체성, 시장성, 지속가

능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사업계획서 평가와 현장 조사를 거쳐 이달 최종심사를 마쳤다.

이번에 신규마을기업으로 선정된 화산영농조합법인은 고창군과 약정 체결 후 국·도·군비 5000만원을 보조받아 청보리를 이용한 기능성 보리빵·보리선식제품 개발과 가공, 산나물 음식체험, 민박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마을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마을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주민이 화합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을기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창군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화산마을영농조합법인 외에도 현재 5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다문화 가족 아빠와 백제문화 역사탐방 진행

부여 백제문화 단지 관광·황포돛배 백마강 체험도

현 시대의 많은 아버지들은 '친구같은 아빠'가 되리라 다짐하지만 바쁜 일과를 보낸 아빠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음처럼 쉽지 않다.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국제이비서 전북본부와 연계하여 다문화2 가족 아빠와 자녀가 부어로 백제문화 역사탐방을 떠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날 프로그램은 부여의 백제문화 단지를 관광하고, 다양한 전통놀이

와 황포돛배 백마강 체험을 진행한 다.

다문화 가정이 함께 한국역사문화를 체험하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 형성을 도우며,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유대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한 결혼이민자는 "평소 바쁘다는 이유로 아빠와 아이가 시간을 보내는 활동은 많이

않다. 이번 기회에 아들과 아빠가 둘이서만 여행을 다녀오도록써 기억에 남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남원시민들에게 교육, 문화, 상담, 돌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가족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063-635-5474)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 '상하농원 유령 대소동'

22일~30일까지... 미션 수행·퀴즈 이벤트 등

고창의 농어촌 체험형 테마공원 '상하농원'이 할로윈데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30일까지 이야기가 있는 이색 할로윈 축제인 '상하농원 유령 대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미녀의 저주에 걸린 상하농원에서 보내는 할로윈'을 주제로 할로윈데이를 한국 농촌에 접목,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게 재해석했다.

특히 기존 테마파크의 할로윈 이벤트와는 다른 농원만의 맞춤형 할로윈데이를 경험할 수 있다.

상하농원의 건강한 아이들이 마녀가 준 초콜릿과 사탕을 먹고 유령으로 변했다는 가상 상황 아래, 관광객들이 미션을 수행해 저주를 풀면 건강한 아이들로 돌아온다는 설정으로 이벤트가 펼쳐진다.

특히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해 '블루 마법 카드'를 제작, 퀴즈를 풀고 도장을 받은 후 바른 먹거리를 먹었다는 다짐을 적으면 농원이 마녀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한편의 동화 같은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상하농원은 '트릭 오어 트릭(Trick or Treat)'과 같이 어린이들이 이웃집을 찾아다니며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얻는 할로윈 풍습에서 착안해 로컬 푸드를 활용한 호박라떼와 복분자 피주스, 블루베리 눈알 에이드와 상하농원의 인기 먹거리인 소시지류로 만든 미라 소시지빵, 손가락 푸딩 등 다양한 기념 메뉴를 선보인다.

또한, 상하농원의 건강한 순백색 유정란에 달걀 유령을 그리는 체험과 먹거리 공방에서는 장인이 손가락 형상을 본뜬 할로윈 과자를 만드는 등 평소 여유로운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호응'

법적 혼인 상태 만 44세 이하

임실군은 지난달부터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법적 혼인 상태인 만 44세 이하 전 계층 여성으로 확대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은 그동안 월 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지난 9월 1일부터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인공수정은 1인당 최대 50만원, 체외수정은 최대 300만원까지 높였다.

지원기준은 2인 가구소득 월 583만원 초과 시 인공수정 20만원 3회, 신선배아 이식 100만원 3회, 동결배아 이식 30만원 3회이며, 110만원 이하 가정은 신선배아 300만원 4회, 동결배아 100만원씩 3회를 지원한다.

또한, 소득 110만원 초과 316만원 이하 가정은 신선배아 240만원 4회, 동결배아 이식 80만원씩 3회를 지원 받는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640-335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수리시설 보수·보강 총력

남원시가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보수·보강사업에 연내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올해 총 94억원을 들여 4개 지구의 재해위험저수지정비와 39km의 용·배수로 현대화, 수리시설 110개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또 그동안 용·배수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로 인한 어려움을 감소해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은 국비확보, 현장실명 등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적기에 해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남원시는 내년에도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뿐만 아니라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배수개선사업, 경지정리사업, 농로확포장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농업인에게 최적의 영농편의 및 안전한 영농활동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시설물은 조기에 정비할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는 2016년 현재 저수지 220개소, 양·배수장 59개소, 관정 259개소, 취입보 106개소, 용·배수로 1,085km를 관리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읍 복지허브·구축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순창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중국)와 순창읍,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 18일 순창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순창읍 복지허브'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순창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중국 위원장과, 오수환 순창읍장,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정연부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순창읍지역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복지소외계층에게 보다 다

양한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모아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세기관은 순창읍 복지허브와 활성화를 위해 매월 정성금을 모금하고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특이점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구축

남원시에서는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와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남원시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2017년도에 구축되는 남원시통합관제센터는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이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4시간 통합 관제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하여 남원시는 국비 5.5억을 포함한 총 11억원의 사업비로 119명의 공간에 관제실, 장비실, 재난종합상황실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른 제반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마우현 남원시 홍보전산과장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면 각종 사건·사고의 사전예방은 물론 긴급 상황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시민 안전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한 남원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고창군, 지진대피 훈련 실시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제403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지진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19일 고창남초등학교에서 재학생과 교사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진대피 훈련은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상황전파와 초동대처, 대피훈련과 대피요령을 비롯해 생활안전 교육 등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등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식하고 주민들에게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교육과 실제 대피 훈련을 해봄으로써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고창읍일원에서는 오후 2시 민방공 경보발령을 시작으로 공무원, 경찰 및 민방위 대원, 봉사단체 회원을 중심으로 군청 앞 로터리, 터미널 사거리 등 5개 지점에서 '차량 통제 훈련'도 진행됐다.

군은 훈련에 앞서 군청, 터미널, 진동시장 등 전광판을 활용한 홍보로 훈련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했다.

박우정 고창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재난 상황 속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의 대비 훈련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행동요령을 익혀 우리 군민들의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훈련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치즈&식품연구소, 워크숍 개최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소장 이상천)에서 '2016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연구소 워크숍'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 18개 지자체연구소 원·소장을 비롯한 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임실치즈&식품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실군 향토건강식품명품화사업 운영전략(임실군 영경위?독할?꽃나무의 건강기능성개발인정) 소개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의와 지자체연구소 조직문화 리더십 교육 및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1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방문해 통합의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